

지역 소식통

정읍시, '2023 통계조사 우수기관 선정 표창'

정읍시가 지난 20일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3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통계조사 유공 포상은 올해 실시한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국가통계조사 수행과 통계발전을 위해 노력한 전국의 20개 지자체와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시는 철저한 사전준비, 조사요원 선발부터 교육까지 체계적인 인력관리, 현장 실사지도와 조사내용 내검 등 정확하고 성실하게 실시한 것을 인정받아 통계조사 유공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학수 시장은 "조사에 성실히 응해준 시민과 업체, 정확한 조사를 위해 노력한 조사요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정읍시가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본격적인 김장 시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22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 럽피스킨 '안전지대'

전북 최대 소 사육지... 철저한 방역으로 감염 수 '0' 유지

한 달 전 럽피스킨이 발생한 이후 전국에서 100건이 넘는 감염사례가 나왔지만 전북 최대 소 사육지인 정읍시는 철저한 방역으로 감염 수 '0'을 유지하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시에서 럽피스킨이 발생한 후 전국 34시·군·동에서 107건이 발생했다. 전북에서도 총 14건(고창 12건, 부안 1건, 임실 1건)이 발생해 발생 농가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했다.

특히 정읍은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소 사육 규모를 가지고 있어 긴장감이 더욱 컸다.

이에 시에서는 럽피스킨 초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700여 축산농가와 합심해 초동 차단방역조치에



총력을 다했다. 또한,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백신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해 1차 긴급백신 접종 소들은 현재 집단면역에 들어간 상태다.

이러한 노력으로 22일까지 정읍에는 단 한 건의 감염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시는 럽피스킨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방역 태세를 갖추는 등

방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파리, 모기 등 흡혈곤충이 사라지는 11월 말까지 연무소독차량 8대를 동원해 소독을 지속한다. 이와 함께 방역방제기 2대, 소독차량 7대로 소 사육농가를 순회 소독을 실시하고, 추가로 유충구제제, 생석회, 구연산제 등 소독약품을 축산농가에 공급한다.

시 방역관계자는 "백신을 접종한 소에는 럽피스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면역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라며 "증상이 심할 경우에만 공수의 처방을 받아 치료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럽피스킨 사태에 전 축산농가가 한 몸으로 똬처 적극 대응해 지금까지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사태가 종료된 것이 아닌 만큼 축사 내 소독과 구충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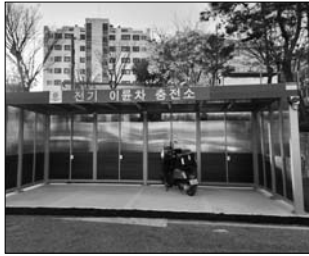
부안군, 공공 전기이륜차충전소 제1호 운영 개시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 사용 편의... 24시간 상시 충전 가능

부안군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와 사용 편의를 위해 2023년 11월 23일부터 전기이륜차충전소 제1호의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충전소는 부안읍 서외리 상설시장 공영주차장 내에 있으며, 4대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시설로 24시간 상시 충전이 가능하며, 충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설치 및 충전하면서 쉴 수 있는 쉼터 의자까지 구비하였다고 한다.

지금까지 공공 전기이륜차 충전소가 없어서 충전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



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충전 시간은 약 1~2시간 소요

된다"고 하였으며,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으면 제2호, 제3호의 이륜차충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한편, 부안군은 2019년부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약 130대를 보급하였고, 2024년 100대 등 전기이륜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부안군 최형인 환경과장은 일반이륜차는 내연승용차에 비해 높은 대기오염과 소음,탄소배출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어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글마루 산책' 동아리 마을이야기 그림책 발간

고창군 글마루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독서동아리 '글마루 산책'이 고창의 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그림책을 발간했다.

그림책은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공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동네 Book 마실'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독서동아리 회원들과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윤도장'과 '운곡탑서부습지', '동리 신재효와 관소리 공원' 등을 찾아 답사하며 직접 그린 그림 스케치와 이야기를 엮어 그림책으로 완성했다.

이번에 발간된 그림책은 지난 2021년부터 발간해 온 고창마을이야기 1~6



권에 이은 7~9권으로 '우리 고유의 나침반 고창 윤도', '우리 삶을 노래한 관소리와 동리 신재효', '어서오세요, 운곡탑서부습지입니다' 등 3종이다. 그림책의 삽화와 이야기 구성에는

임진서, 안설화, 정지은, 임민지, 이하림(이상 고창 자유중)학생과 한설이(고창초) 학생 등 지역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으로 마무리 됐다.

활동에 참여한 임진서(자유중 3) 학생은 "3년째 그림책 활동을 참여했는데 고창 윤도는 처음 들어 봤고 답사가 가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이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고 많은 공부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창마을이야기 그림책은 글마루작은도서관이나 고창군립, 성호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4개 보훈단체(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가 22일 보훈가족 120여명 참석한 가운데 나라사랑 선양행사를 진행했다.

"일상생활 속 기억 · 존중의 보훈문화"

고창군 보훈단체, 호국정신 함양 위한 나라 사랑 선양 행사

고창군 4개 보훈단체(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가 22일 목화예당홀에서 보훈가족 120여명 참석한 가운데 나라사랑 선양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4개 보훈단체가 공동주관하여 해마다 열리는 행사다. 호국보훈의 근간이 되는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그 실천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 의례, 내빈소개, 초청공연 및 오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행사의 진행을 맡은 성용제 무궁수

훈자회 지회장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사가 그 분들을 기억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보훈가족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예우와 복지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일상생활 속 기억과 존중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는 22일 제 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먼저, 송기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상징 '반석보'의 위치 고증과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정읍시로부터 1조1,045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안전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 2024년 정기분 정읍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부형) 소관 2024년 정기분 칠보산 산림 레포츠단지 조성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가결하고 제2차 본회의를 종료했다.

제2차 정례회의 주요 일정은 상임위원회별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조

례안 등 안전 심사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 심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의 심사,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등 안전 처리,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하고,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으며,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안전 심사 활동은 정읍시의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ijmaeil.com에서

